

오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성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국을 관찰하는 주간 경상부 관찰장 성호정 관찰총장 961-4161, 962-7128 FAX 961-4183 4468 031-330-4112 서울시 강남구 이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신원리 100

자 오늘 치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늦게 왔더군요.
내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빌려 차지했다고요.
제 그들이 여기 있는 거죠.
제 그렇지만 알아두는 거죠.
제 그들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제 차이를 경험하면서 사람이라면
더욱 금강성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연장은 우리나라의 그니까?
공연장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는 건지,
지키고 노출을 안하는 건지,
우리 신중하게 한반 생활해 보자요.



지식인의 묵비를 피하자
논쟁의 사방진 사회,
실천하는 지식인은 없다고
개방하는 오류이다. 우리 사회 지식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한대 지식인의 추구해야 할 상은 어떤 것인지
입술들은 강중권이나 강자자리에 함께했다.



종일 운동하는 성지, 조국을 알면 축면연이
참여 10주년을 맞았다. 행사에 미리 보자.

본관 신축 173여 억원에 낙찰

예상금액보다 적은 액수이나 모금학증계획 우려 여전

본관신축공사 입찰 결과 (주)삼한기업이 173억 1620만원으로 낙찰됐다.

지난 10일(금)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입찰은 도급금액 30억 원 부수비율 500% 내인 9개 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관련 건설부문 건축주인 한성민씨는 "본관신축 공사는 건축주가 품질을 비롯해 한달여 후이나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 낙찰가는 당시 총장이 제시하던 200억원 보다 70여억원 적은 액수였다. 이로 인해 본관신축 건설비로 당초 교과 및 모금액을 포함한 외부수익으로 120여억원 흥행하려던 계획에서 80여억원식으로 부수비율 줄었다. 공사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한때 평균 60여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조규철 총장은 "경기 좋지 않아 건설비가 낮아진만큼 부수감이 일 것이다. 본관이 공사에 들어가면 모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본관신축계획이 발표된 후 이에 원



요한 자금충당계획안에 대해 구성원들은 우려를 표명해온다. 하지만 이번 낙찰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다소 진정될 듯 하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김재영 노조위원장은 "모금액에서 본관신축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충당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 본관신축 발전기금으로 아령면 40여원 중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약정 예산은 40여억원으로 전체예산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액수이다. 또한, 의정자가 본관신축건립 비용 외에 학과 장학금 등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높아 있다.

이와 관련 외래전관캠퍼스본부 사무처장 이민중씨는 "경기화한 목표수는 정하기 힘들다.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제대학원 충청대학교 강병식(신문방송학 전공 학과 교수)은 "모금계획대로 추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발전안 주민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에 따른 자금수요도 즐것이다"며 본관신축 건설비와 발전안 추진비용에 대한 구체적 금액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태일 의사 정신개습 신자주의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자대회가 지난 12일(일) 대학로에서 약 3만여명의 노동자, 노인, 학생,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1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워크팀은 경찰 부족에 맞기 위해 구성된 노동자선봉대원

양배움터 총학 선거운동 돌입

서울·총학·단대 대부분 후보 등록 - 용인·총학·총여 단선으로 치뤄져

총학생회·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등록이 대부분 끝났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수)부터 12일(일)까지 기초 1번 '개방학부' 조경미(법·법학 95)·박지운(동양·인도어 97)과 기초 2번 '아름다운 심장을 하는 우리'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용인(서양·네덜란드어 95)과 이후보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투표율은 22.23%(목)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수) 5시 불은광장에서 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유예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16일(목) 34 노학극장에서 정전권을 개최한다.

서양에서는 후보등록 마감 결과 김재연(라시아어 99)과 김태종(이태리 96)과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22.23%(목) 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법대는 박종민(법학 99)군과 차은우(법학 97)군과 이승민(법학 99)군과 차은우(법학 97)군과 이승민(법학 99)군과 차은우(법학 97)군과 이승민(법학 99)군과 단독으로

온라인으로 등록해온다. 이날

온라인

만나보기 - 이숙경 전 이사장 편지 **김씨 종친회** 회장 김종국씨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지난 달 30일(화) 이숙경 전 이사장의 편지가 각 구성원들에게 송달된 이후 다시금 학내 긴장감이 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이 편지에서 품은 '김씨 동문문화회 종친회가 문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자 구성원들은 족쇄제재회의 복귀가 아니라 우려의 힘에 일으킨 구성원들의 저항을 재단 이사장은 전 구성원의 뜻이 오마전 공정성에 바탕한 재단임이야 한다는 의도까지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김씨 종친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되고 있는 시장에서 김씨 종친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우리학교 건설부주장 김종국씨를 만나 편지 전문과 김씨 종친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편지 내용 중 김씨 종친회가 문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반감 때문에 클 것이다. 사실, 문정회(김종친회)는 어느 집안이나 그렇듯 혈연간의 우애를 위하여 있었고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20일 이 전이사장

이 학교를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종친회에서도 회장을 어렵다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과 살립자 부인으로서 종친회를 추천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수준 구제단제재회

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족쇄제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아들이든 손자는 경영 능력이 없으면 시켜선 안된다. 세습제라도 모든 조

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남보다 낫지 않음은 당연이다. 그러나 능력이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에는 2~3명의 직계 갑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고 하여 있다.

내년에 관리사가 일기와 끝나는 시점인데

관선이사의 일기는 내년에 깊지는

않 수 있으나 살립자 부인의 입장이 그

렇고 구성원들이 추천한 관선이사들이

받아들여 교육부가 승인하면 될 것이

다. 학내가 어려워 암울화하지 않으면

다시 관선이사가 괴롭힐 것이다.

학내가 어려워 암울화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를 살려하려고 푹 있는 찬성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사장으로서

나서서 일을 하며 후원에서 학교를

위해 도와 줄 것이다. 구성원들이 살다

면 그들이지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

다. 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고 생각했는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아 디펜스된다.

우혜니 기자 mimo32@hanmail.net

서울배움터 공연장 사용 실태

공연장 과부하로 자치활동 몸살

서울배움터 노학국장 '소음'은 노후 사용을 제거하는 것과 학교축이 공간 자체 해결을 위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노학원 사용료는 노학원사람이 살면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다.

또한, 사장으로 인해 행사 일정이 번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서울배움터 풍물기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풍물기 춤연으로 하면 차운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반드시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이러한 일들은 등이거나 각 과의 춤페, 노래연습 등 공연하는 단체들이 행사 시간을 사용기간을 폐기하면서도 충분한 연습시간 확보를 필요로 함으로써 서로 엉터리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다.

또한, 사장으로 인해 행사 일정이 번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서울배움터 풍물기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풍물기 춤연으로 하면 차운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 단체들은 공연장 부족으로 연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 경우도 그렇지만 공간이 없는 각 과 소모임의 경우는 더욱 연습하기 어렵다.

12월 초에 정기공연을 앞둔 중국어와 원어인연합회 춤연 담당자는 "사회과학과 춤연을 빙고연습을 빌려 빙고 연습을 하고 있고 있지만 8시에는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예술을 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습시간과 함께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습공간이 따로 없는 단체의 경우

빈 경기장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음악시간이나 조율이 없어 효율적인 연습이 되지 않고 있다.

박수준 기자 somo-j@hanmail.net

연강 관리의 일상화와 공연장 사용에는 단체들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리

외대학보 ■ 외교

기고글 삭제시 상의해요

지난 주 '한국의 소리'에 투고한 기사가 중간에 두 문장이 잘린 채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보사측의 의도적인 편집이었을 수도 있고, 발행되기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편집이었더라면, 사전에 투고자와 상의를 했어야합니다. 이기고 보통 신작이나 친구에게는, 또 실수라도 해도 신문이 배포될 때 까지 실수를 몰랐을 정도로 허술한 걸로 과정을 거친다는 걸 문제라고 본다. 글은 쓰는 자는 자신이 투고한 글의 발행상태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한다.

김근수(사회·신문방송 99)

개의 주인이 바뀐 뿐

- 아옹

그의 아버지가 끊긴 영향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 전진전

Don't beat around the Bush

- 속담질 걸과 예측

Uncle Sam 사랑해요!

- 7번동에서

김대중도 모른다

- 공짜 저어서



주제: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Hard Core - 이러한 고어 대 통령

- 예언자

다를 바 없다.

- 주한미군

대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체 스핀이 만들어 질 것이다.

- 정기판에 김정근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1. 제출대상

사법대학 2000학년도 전기(2001. 2. 25) 졸업예정자
교직과정을 이수증인 2000학년도 전기(2001. 2. 25) 졸업
예정자

2. 제출기간

2000. 11. 13(월) - 11. 24(금)

3. 제출장소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교무처

4.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학교수업증지 500원 2매)
주민등록초본

5. 유의사항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 교직과정 이수증과 소장의 학점은 이수한 자라도 전공 및 교직성적은 각각 80점 미만이거나, 교직필수 과목 및 전공별 기본과목 미이수자는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0. 11. 14

사범대학장

2001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아관) 신입학 특별전형

1. 학과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모집과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전형방법
공공정책	공 공 정 책	공 공 정 책	1	면접
환경정책	환경 정 책	환경 정 책	1	면접
석사과정	환경 경 기사	환경 경 기사	0~1명	서류전형
교과과정	교과 경 기사	교과 경 기사	0~1명	면 접
박 학	박 학	박 학	0~1명	면 접
신 과	신 과	신 과	0~1명	면 접
신 과	신 과	신 과	0~1명	면 접
광 고	광 고	광 고	0~1명	면 접
광 고	광 고	광 고	0~1명	면 접

2. 지원자격

가. 졸업 대학 졸업자는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기타 고교부정인인 인정자는 고교 졸업자 및 특수자

3. 지원서류

가. 입학전형(서류전형) 4종

나. 최종학교 출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본인 명의)

다. 최종학교 전자상식증명서(2000년 학점현황 신고기)

라. 재수 및 강적증명서(부자재학원 신청)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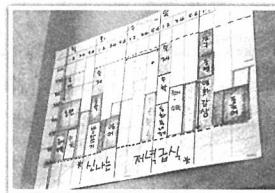
푸른 꿈을 키워 나가는
#움터



▲ “자~다시 한번 강단 맞춰보자”, “너무 빨라. 좀 더 천천히” 등 덩덩덕터공 무지개어린이 집이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징구를 치는 푸른학교 1-2학년 아이들의 모습. 시끄럽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징구체를 잡으니 징구연주에 집중한다. 작은 손으로 우렁찬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달차 보였다.



▲ '가위바위보' 수업시간을 마치고 급식을 먹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를 해 이겨야 교실문을 통과할 수 있다. 선생님이 지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날 보자'라며 학생들 한명한명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지난 98년도 IMF한파가 몰아칠 때 건립된 푸른학교. 성남지역 실직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와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생긴 이곳에는 정식교사 3명, 지원교사 4명과 초등학교 40여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학교이다.

98년도 실업극복운동분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지만 지원이 그리 넉넉지 않아 교회, 성당, 동사무소 등에서 눈치와 싫은 소리를 들으며 이곳저곳 이동해야만 했다. IMF로 그늘진

이야들의 어둠을 없애주고자 노력하는 학교로
에 얼마 전 밤마다 밤마다 들여다보았다. 약 10만원짜리
물을 가지고 한방에 꿈같았던는데 이번에 날마다 물
을 다 깊어있는 소식을 전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한 겨우정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공인언어학부의 지원 세대에서 안은 옳을 수밖에
30%를 이곳에서 기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됐었으나
요.”라고 밝혔듯 푸른학교는 우리학교와 인연이
이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학교를 펼쳐놓거나
재학원생인 선학생이나 4명이나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글로벌마인 중국국가 기부처로부터
이전경수 서류를, 차시아이 17장을 “중국국민으로
아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푸른학교
아들이 재밌어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다. 아이들과 장난하는
식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17장선생님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줌마 선남봉기에게 아이들을 더
한테도 기부하겠다.

“마지막은 오는 이들이 저소득층, 결손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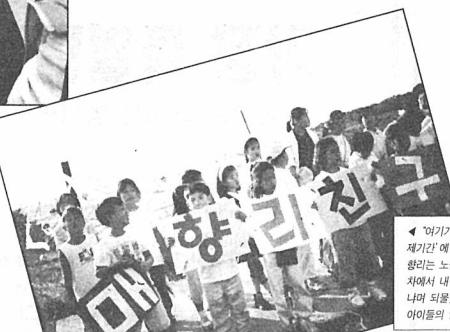
벗어난 학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살입대책
분부에서는 이제 IMP가 풀었으니 재정적 지원
원을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기난으로 배우자 빚한 한을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않기 위해 돈을 버느라 아동들을 살기위해
느라 바쁜 부모들, 그런 부모들의 정을 고려해보면
하는 아이들, 이를 돋우기 위해 돈보다는 사랑을
택한 선생님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는 이
들이지만 푸른학교에서 창시봉사를 배우고나가는
모습이 솟아 포근한 미안이다.

제작 시지부

ARS : 700-1101
후원 계좌번호 312-21-0234-584
조흥은행 513-06-100922 김이란



▼ “더 쥐?” “응. 잡채 더 쥐” 푸른학교에는 성남지역 실업극복대책본부에서 급식이 지원된다. 비어있는 집에 가면 스스로 밥을 쟁여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사각은 어려워서 허 {{
 "label": "Image", "x": 850, "y": 780, "w": 100, "h": 100
}} 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 뒤떨어지는 아이를 개인별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선생님 덕분이었을
경우에 여간으로 부모님으로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비단 부모님의 억울
한 심사 대신해 줄 수 있다.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 생각해요

처분한 목소리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바지 선서무역, 바이어와 회장, 그들은 지난 하기부터 꾸준히 고급 품질면밀을 하고 있다. “우리가 허락한 품질은 다른 이는 단위를 직접 품으로 느끼고자 배우고 있어서 오래 됐어요”라는 말이 나오자 진료로 바꿨다. “당뇨병 중 당뇨”라는 말에 아예 놀라 다른 이에게 박수를 치면서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는 바에 따르면, 향후 한·미 대화는 세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정도로把握하고 신경을 짜야겠어요. 그리고 그 입장을 확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입장을 확장하고 싶은 정도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그 입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며 보통은 그들이 말했다. ‘이 아이가 꽃과
도화, 페리온, 꽈영화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는
진로로 심장이 어려운 이유는 아닙니다. 거기
아이들이 그런 꽃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꽃을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배울 때마다
그리고 괜찮아보이면서 이 모든 꽃을’ 관심과 애정

하는 것' 72.08%

학생회 중장기 발전안 관련 공약 필요

캐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혀 캐지지 않았다'는 답변도 서울 10%(10명), 용인 7.21%(7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도 보인 선거공약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는 배운다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서울은 등록금 등 학원자주화부정부(43.2%, 42명), 용인은 학내 복지해결(43.29%, 42명)을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꼽아 학생들의 생활적 요구와 관련한 부분의 공약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2001년 선거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임대금이

구성원 모두 중장기 발전안 수립 등 학교 발전안 부문(57.86%, 114명)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해 올바른 중장기 발전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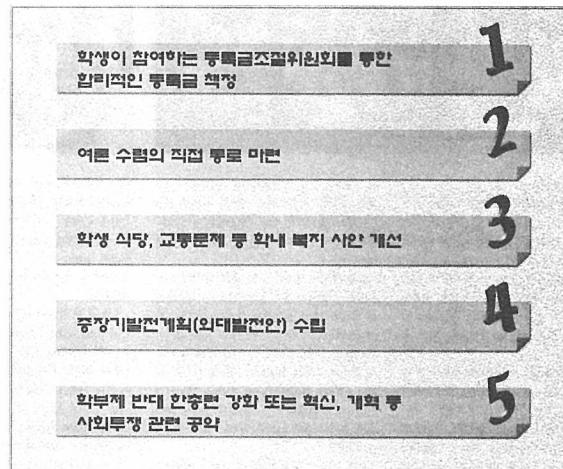
한편 주관식 문항이었다는 2001 학생회 선거공약에 비친다는 질문에는 '자킬 수 있는 공약인 해답이'(36%)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 해외 기성 정치인과 같은 남북정 공약은 그만 '적은 것 하나라도 캐지지'는 등의 제언이 나왔다.

그 외 답변으로는 '비판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약' 도서관이나 노년극장 문제 해결 등의 실질적인 내용도 눈에 띄었다.

대학부

공약베스트 5

근 10년 동안 총학생회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공약을 순위매김한 것입니다



설, 학부제와 교육과정개정에 대한 학생의견 개진, 대학
발전 투명 진계

용인 17대 공약 : 학부제 모집요강 전면 철회, 외국어
연구센터 등 7개 건물 설립, 생활협동조합학생위원회 위
상강화, 해외연수 성과 인정, 학생부 단과대학과 고
등소외학회 건설, 재단 운영상의 문제해결 요구, 7천 학
생들과 함께 하는 세계인속예술축전

새 지원을 안다

공약 : 전자화폐 건설, 학부제 완전화정, 동구아데 단과
분리 위한 교수들과의 합의, 국체대학 예산운영 감독, 교
육과정심의위원회, 등록금조정위원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 학술부 건설, 청년강좌 개설, 학생회·한총련·반감
의식 평창화 의사개진 운동, 대선 후생을 위한 정직 토론
문화 강화, 체육관 건립, 농지기금 마련,

97 서울 31대 자유를 향한 역습 그 즐거움은 계
속된다

공약 : 총학생회 예산공개, 한정된 개혁, 생활도시관 전
설, 유학정보센터 설치, 학점과 시험관의 변화, 국체대
학으로 교육환경 개선, 학생회관 신축, 외서전 부활

용인 18대 친환경의 시대, 청년의 대안, 참여와 단결의

98 서울 32대 총학생회답게

공약 : 교육개혁, 대체단부정상 대안 개혁준비, 민주총
장선수, 재단정인금화보 위한 교육재정화보 투쟁, 총장
취임준비기구 마련, 졸업준비위원회 취업대책 학생
기구로 개편, 학생식당 개선

용인 19대 친환경의 꿈, 백만과 함께

00 서울 34대 새 세기 그 첫 번째 만남, 우리가

만드는 미래, 미래가 만드는 세상

공약 : 99년·98년 재단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는 국립
화, 미리 교수 복귀 반대, 장학금 확대, 외대 정보 인프라
구축, 학생식당의 주말 개방 및 확장, 도서관 공사, 기관
지 발간, 운동장 주변 조경 설치,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
설계, 쇠수거, 소운동장 그늘 높이기

용인 21대 새 천년 환경의 역사를 다시 쓴다. 새 시
대, 희망창조

공약 : 등록금 산정투쟁, 지역화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
입, 양배움터 통합발전, 대학원의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
권 보장, 제2기숙사 건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소
위원회 기구 설치, 모니터 요원 구성, 신설 등록금 마련으
로 신당 짚기선

LG Fashion

전통적인 트레이서널 웨어를 세련된 도시감각으로 새롭게 입는 헤지스

헤지스가 드리는 겨울 선물

이외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주제로
다룰 수도 있는 다양한 글들을 들립니다.
클리포드 스트로우를 보온이 아니라 부드러운
세상은 오랜지, 비비드 블루 커버 가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오지 않은 원래로 20일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증정합니다.

www.hazzys.com

교
학
만
(?)
같
아
라

교
학
만
(?)

!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현황과 대안

한국 만화 문화 전시회

요리조리 둘러봐도 친구없는 우리의 둘리



시장점유율은 0.39%

전체 캐릭터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요즘 바쁜 손 등 우리나라 회사의 캐릭터는 거의 찾지 않아 물건을 잘 받지도 않는다. '우리는 꾸준히 찾고 최근에는 '여태 편다'나 '브랜드부'가 가장 큰 인기다"고 전하는 사람은 종종국 이트와 문점 대표 김종우이다.

밀대로 요즘 문구점에 가보면 누구나나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 캐릭터 상품은 찾이보기 힘들다.

경계가 밝진하면서 비싸더라도 모양이나 의미를 찾는 어려움이 생기면서 문구점부터 웃, 가방, 해외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특장캐릭터를 심포화하는 캐릭터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기공을 놀리가 상품화에 성공, 그 후 바쁜손 등 캐릭터 상품들이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산업체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

다. 하지만 이런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우리는 미국과 일본 캐릭터 업계에 시장의 대부분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크게 캐릭터개발과 유통망에서 힘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꾸준히 찾고 최근에는 '여태 편다'나 '브랜드부'가 가장 큰 인기다'고 전하는 사람은 종종국 이트와 문점 대표 김종우이다.

우선 캐릭터 개발의 경우 첫째, 독자적인 캐릭터가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세종대학 교과 민화영상학부 학생회장 유풍식(88)군은 "둘리 이후에는 독자적인 캐릭터가 전하고 없다고 봄다.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캐릭터에서 몇몇 특징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모방이다"라고 전한다. 특경이나 웃, 가방, 해외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특장캐릭터를 심포화하는 캐릭터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기공을 놀리가 상품화에 성공, 그 후 바쁜손 등 캐릭터 상품들이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산업체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

다. 하지만 이런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우리는 미국과 일본 캐릭터 업계에 시장의 대부분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크게 캐릭터개발과 유통망에서 힘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꾸준히 찾고 최근에는 '여태 편다'나 '브랜드부'가 가장 큰 인기다'고 전하는 사람은 종종국 이트와 문점 대표 김종우이다.



둘리나 하니의 어처럼 이야기에서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친근하게 느끼며 그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다. 반면에 캐릭터상을 위해 개발된 캐릭터는 대부분 단순히 모양만 예쁘고 귀여운 면을 강조하기에 단편적이거나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이 자세히 있다.

"예전엔 한 캐릭터 제품이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렸는데, 외국캐릭터의 경우 우수한 만화만에 모든 제품에 상품화가 되어 시장에 펼쳐지거나 바쁜손위즈 정상화(홍보해리)씨는 전한다. 캐릭터가 사람방기 앞에서 눈에 띠게 그 상품 배경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에서는 한 환경이라고 전한다. 또한 캐릭터의 미래 판은 아마 한국인의 색채가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캐릭터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은 우리것이 가장 개성이 있으므로 전신수하고 하고 통찰성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스크린쿼터 관련 심포지엄 보도

오락가락 영화정책, 중심을 잡자

한동안 잠겼었던 한국영화의 무상영업일수를 규정한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로 번졌다. 지난 8월(수) 국회 대중문화기획단에 연구회는 의왕회관에서 여야 의원 및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세기 영상문화 발전과 스크린쿼터제' 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국회문화인재교류상담원(위원회) '한국영화의 무상영업 유형지 혹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스크린쿼터 수호의지를 확인했다.

우(우)나(나)에서는 2년전부터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99년 1월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를 천성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택되었고 세속된 영화인들의 반대와 시민단체도 함께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스크린쿼터제를 부인한다. 그것이 우리 영화나 영상의 초석이자 안전지킴이의 불합리한 제도를 떠는 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 미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문화관광부도 스크린쿼터제는 당장이 유치아이에게는 입장장을 밝혀왔지만 외교통상부는 죽소의사를 간간히 밝혀온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제도는 지금껏 이어아슬하게 유지되어온 걸장이라고 그 논의 또한 2년전과 달리 바 없는 진전없는 써운 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린 심포지엄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죽구 결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용의 일환으로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원문(국제대학교 교수)씨의 사회와 심평현(국립현대미술관)과 협상원교수(교수), 김준기(연세대 교수) 등의 발제와 이은(평론을 제작자), 이창동(감독), 문상경(스クリ나페스티벌연대 대표)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덕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106일로 줄어든 한국영화의 무상영업일수는 단 하루라도 더 줄어들 경우 한국영화산업은 순식간에 무너

새옹반 소개 - 고 문익환 목사 한정음반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부른다

문화한 목사...

2000년 가을, 그의 아름다운 시에 음악의 생명력이 더해져 우리에게 다시 불이었다.

'뜨거운 마음'은 앞선 음악가를 기리는 것이 아닌 최초의 '현경음반'으로 그의 주옥같은 시 몇몇 작품과 류정선작곡곡을 불이笥고 경매춘, 이경열, 김원봉, 윤정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내가 디디 자국은'을 시작으로 두 히트 한 히트, 고마운 사람에게, 팔랑상, 비무장자, 대서 등 11곡이 수록되었다.

작업의 시대 민주화를 외쳤던 격렬함과는 달리 이번 물음에 담은 열한곡의 노래는 한없이 경질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후단이 낙무하던 거리의 함성도, 삶을 예는 폭파된 고도로 군화발등 상자과 폭죽과 티모린 적의도 살려있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풍랑하고 달배하던 문이란 목사를 기렸다.

대중음악평론가 강문씨는 "이 작품 음반은

'살이남은 자'들의 후원일이 아니라 온신했던

정의의 시표를 새로이 우리의 뇌리속에 자리매

김희. 불현듯으로 걸친다면 '뜨거운 삶'을 찾을 것이다.

늦은 문인한 목사처럼 바치는 현경음반 '뜨거

운 마음'은 디디한 그대 대한 기억과 회고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로 이어진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문화 단신

서울

해외문화학 정기세미나

'쥐스킨트와 가위와의 만남'

오는 15일(수) 대학원 2128에서 문화동이라 해외문화학 정기세미나가 열린다.

'쥐스킨트와 가위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쥐마리아나'와 '이방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서로의 죽음을 버리고는 생각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문화나라라면 다른 어렵게 생각한다"고 전하는 동아리 회원 윤정원(법·법학 38)군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실존주의 문학에서 살펴봄에 있어 보다 쉽고 매혹적인 책들로 선택했다고 전한다.

용인

손자사랑회 열두번째 수화발표회

수화동이라 손만사랑회는 오는 14일(화) 늦은 6시 자연대 대강당에서 열두번째 수화발표회를 연다. 동감이라는 주제로 광고페스티와 소망제작원에서 느낀 점을 수화로 공연하고 천진출연으로 국민대와 경기대의 수화동아리 공연도 있다.

이와 관련 동아리회장 노안호(정보산업공·제어계통 99)군은 "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장애 우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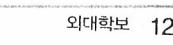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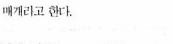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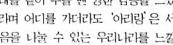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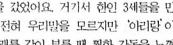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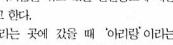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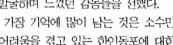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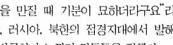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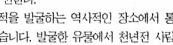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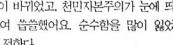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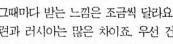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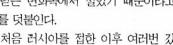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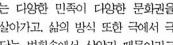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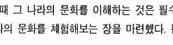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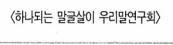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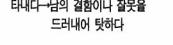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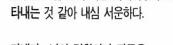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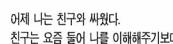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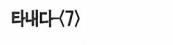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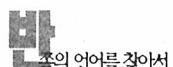
독일어과 로이터 국제공연 '일상', '몰릭의 시간' 상연

독일어과 국제학과 로이터는 오는 14일(화) 늦은 5시 30분 용인 배움터 후부관 소극장에서 텔레비전의 '일상'과 '몰릭의 시간' 이런 작품으로 네 번째 경기공연을 연다.

89년 만들어진 후에는 두 번째 경기공연 후 활동이 없던 로이터는 지난해 5년ぶり인 강백을 깨고 새 번째 경기공연을 치루었다.

이와관련 로이터 회장 정희정(서류류·독일어 99)장은 "로이터가 사랑이란 뜻으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배움터 대학원소극장에서도 오는 18일(토) 늦은 5시 30분에 공연을 갖는다.



추모수기 - 전태일 30주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친구로서의 전태일은...

여하 갑시 생활을 엄마 집에 시작한 내가 전 태일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고 대입 시험을 끝마친 직후였다고 기억된다. 필자가 86학 번이니까 8년만일 것이다. 대입 시험이 끝난 직 후 무료대학 차에 대학을 다니던 누나의 책장에 있는 책을 뒤져보니 여기에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지기 조현래 번역하는 것은 나 중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저지기 밝혀져 있지 않았다. 당시엔 이 책이 금서였을 것이다. 표지엔 어느 청년의 사진을 풀에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원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한 회생자로서, 즉 애시를 증언하는 한 인물로서만 생각하였다. 경찰이 현재 짚고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호기심에서 책을 읽어 내려갔다. 난 곧 어머니를 통한 충격에 한동안 정신이 없게 되었다. 그 책은 지금 까지의 세상에 대한 교과서적 교육이 얼마나 허위였던가를 알려주면서, 내가 모른다 고통에 한 세상이 대립국민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허위와 폭압에 온 몸을 뒤틀려 쏘아려 한 청년의 삶을 보여주었다.

전태일이 분산한지 15년 후에 난 전태일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 생이다. 그리고 다시 15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15년 전 전태일의 삶에 눈을 떴지만 그 청소년은 아니다. 그것이 무감각의 지표는 훨씬강정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세상을 좀 더 알기 위해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전태일이란 존재는 나의 의식 한 판에 자리잡고는 나의 대학 시절을 물들 때마다 다녔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원인 들어가고 나아가면서

리 전태일이란 존재를 드러낸으로써 망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공개화와 전태일은 시대의 상징이며, 그 상처는 억압적 정권에 의해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꿈에 되어 더욱 악화 됐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여 상처를 아울러 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자행된 것이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여 상처를 아울러 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자행된 것이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여 상처를 아울러 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자행된 것이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여 상처를 아울러 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자행된 것이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여 상처를 아울러 하자라는 식의 논의가 자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날 억축자자, 과도한 의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태일이란 존재를, 30년 전 군인 통치자의 기혹한 통치 밑에서 살고 어렵던 시대의 한 회생자로서, 즉 애시를 증언하는 한 인물로서만 생각하였다. 경찰이 현재 짚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나 자신이 은연중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나 자신의 내면 역시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므로 30년 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혼자나 나 자신의 내면 역시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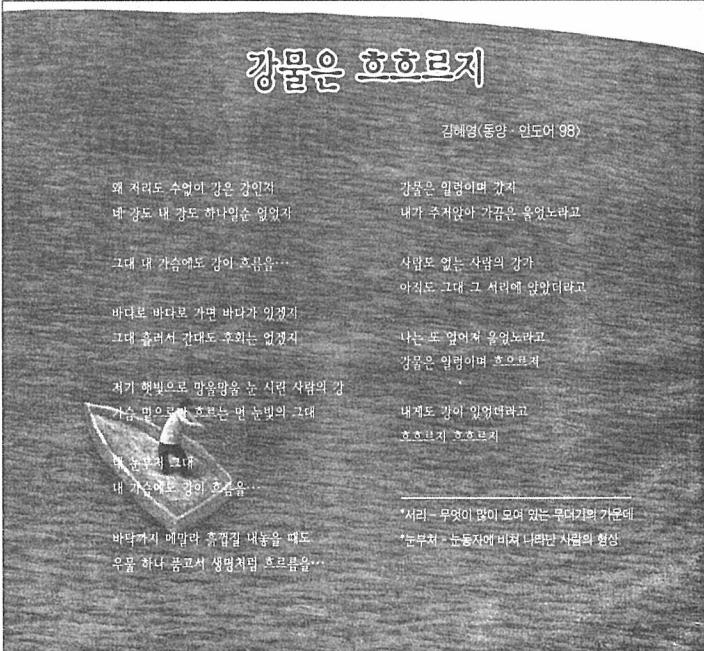
나 자신이 반성되어야 한 시대의 반성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는 우리는 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짊어진 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면 살고 싶어한 사람이었다. 육체가 숨덩이 같이 된 상태에서 회기가 되지 않은 입으로 더듬거리며 계속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남기는 전태일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삶을 엄마나 사랑했던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는 더 살고 싶어했다. 어찌만 불편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친구들의 마음 속에 불씨로 살아나고 싶어했다. 친구들이란 바로 자신과 같이 허대받고 힘없는 '노동형제'들이다. 전태일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아 암입과 취부를 그대로 인고하며 살아야기거나 살피는 힘으로써 자리잡고 살았다. 그의 죽음은 그대로 망각의 강을 건너는 죽음, 무기물로 굳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그



"발해를 꿈꾸며"로 하니면 한반도를 꿈꾸게 했던 조선노동당사.
한번도 번역에 미지의 낯은 사회주의의 견해, 수없이 많아지는 포탄과 총알에 양산한 뼈대만이 남아 처칠한 우리네 역사가 돌아보게 한다. 이제 '유일'이라는 단어를 던져버리고 흥홍한 이데올로기의 껌풀을 벗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한다.

-비무장 지대에 있는 조선노동당사 뒷편에서



강물은 흐흐르지

김해경(동양·인도 98)

왜 저리도 수없이 강은 강이지

네 강도 내 강도 하나같은 일었지

그대 내 가슴에도 강이 흐름을...

바다로 바다로 가면 바다가 있었지

그대 흘러서 간대도 후회는 없겠지

강물은 일렁이며 간지

내가 주저앉아 가끔은 울었노라고

사람도 엘는 사람의 강가

아직도 그대 그 서리에 암암리라고

나는 또 엎어져 울었노라고

강물은 일렁이며 흐흐르자

저기 헛빛으로 망울물을 눈 시咒 사람의 강

가슴, 미으로서 흐르는 먼 눈빛의 그대

내 눈부처 그대

내 가슴에도 강이 흐름을...

바닥까지 메말라 흙집길 내동을 때도

우풀 하나 품고서 생령처럼 흐르를...

내게도 강이 일렁더라고

흐흐르지 흐흐르지

*서리 - 무엇이 많이 모여 있는 무더기의 가운데

*눈부처 - 노동자에 비쳐 나타난 사람의 형상

너, 더 높이 날고 싶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갈매기 조나단은 먹이만을 쫓는 평범한 새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굽히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기에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푸르른 도전의 꿈을 외대 문학상·학술상에서 펼쳐 보십시오

· 문학상 : 시(3편이상) · 시 · 소설 · 수필 · 회곡 · 비평 등

· 학술상 :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등

· 마 감 : 2000년 12월 31일

· 문 의 : 서울 02) 961-4152, 4466

용인 031) 330-4112

· 유의사항 : 심사용 · 보관용 2부식 제출

*상금은 추후공고